

저자 소개

김병운



1957년생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와 퍼듀대학교 MBA 과정을 졸업했다. 대우조선과 삼성전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마케팅업무를 담당했으며,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국제화 및 외국어 교육팀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가천대학교, 신구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분교 및 호원대학교에서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로 활동했다. 현재는 (주)두레스경영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 『삼성신화 아직 멀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 『대한민국 판도라 상자를 열다』, 『정아에게 보내는 서른 장의 편지』, 『영(靈)과 영(零)』 등이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증조부모께서 돌아가실 때 처음 경험한 죽음의 공포는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77년 봄 대학교 정문을 넘어설 때 마른 하늘의 벼락을 맞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정신 없이 쿠사(KUSA, 유네스코학생회)라는 학회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무의식 상태에서 적은 내용의 해답을 찾고자 긴긴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당시 작성한 쪽지는 잊어버렸지만, 적힌 내용은 “모든 존재는 육체, 정신 그리고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로를 느끼는 육체와 정신은 사라진다. 하지만 태초부터 있었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이 모든 존재의 본질이며, 이것은 결코 죽지 않고 존속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를 더욱 심연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육체가 사라지는 것은 보이는 현상이니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정신이 없는—즉 사고할 수 없는—나(self)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종교 책들을 섭렵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종류의 경전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었는지 궁금하여 이들이 쓴 책자를 탐구했습니다.

2005년에 처음으로 『삼성신화 아직 멀었다』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후 여섯 권의 책을 더 내게 되었는데,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번 책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10년 일곱 번째 책을 냈는데 비교종교학 책인 『영(靈)과 영(零)』입니다. 구할 수 있는 모든

경전들을 읽어보고 느꼈던 점을 정리하여 출간하였습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고, 존재의 본질로서 정신이 배제된 영(靈)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영의 정의에 대해서는 막연한 상태였습니다.

『영과 영』 출간 직후 저는 스티븐 호킹의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읽고, 자연법칙 속에 종교적 질문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의 담론에 대한 해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를 사로잡은 내용은 ‘모든 물질은 그에 대응하는 반물질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서로 교류하면 원래의 상태인 영(零, zero)으로 사라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과 영』 제목 뒤의 영(零)이 바로 이 영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이 법칙의 매혹에 사로잡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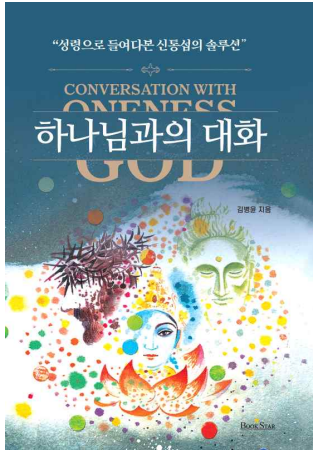
스티븐 호킹을 접하고 난 후 자연과학과 관련한 수많은 책을 접하면서 제가 구하고자 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은 자연법칙 속에 내재되어 있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찾아내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종교를 포함한 사회과학의 법칙과 자연과학의 법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연법칙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존재의 본질, 참다운 삶, 그리고 신의 정의 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2016년 영어로 저술한 『무유(無有, No-some)』라는 제목의 원고를 준비하였습니다.

2018년 그동안 꿈 꾸어오던 책을 내기로 작심하고, 제목을 ‘신과의 대화’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형식으로 책을 써본 경험이 없고,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구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틈틈이 관련된 내용의 메모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월 14일 아버님 1주기 기일에 납골당에 성묘를 가서 집필을 결심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2022년 1월에 『하나님과의 대화(Conversation with Oneness God)』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

『하나님과의 대화-Conversation with Oneness God』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설파한 가르침의 핵심은 ‘모든 존재가 하나임’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들여다 본 신통섭의 솔루션’이라는 부제를 달게 된 것은, 잠시 머리를 식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단어나 짧은 문장이 발상(發想, 내부적)이나 착상(着想, 외부적)을 통해 뇌리에 전달되고, 이를 찾으면 문장이 완성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꿈을 통해서도 책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비한 경험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통섭의 솔루션’이라고 한 이유는 21세기 발전된 자연과학 시대에 해법을 찾으려고 한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통섭을 통해 종교적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명쾌한 정확한 해답을 구하지 못한 현상을 구통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책을 접하는 독자께서 이 책을 통해 사후세계와 신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삶을 설계하고 살아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을 미지의 존재에 맡기지 않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자력으로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이 책을 집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종교인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존재에게 고루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은 이를 파악하시고 신성을 찾아 해탈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예수께서 설파하셨던 존재의 본질, 사후세계,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깨우치고 사랑의 원심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종교의 방향타를 잡고, 일반인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제공하는 제대로 된 종교의 기능이 발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진리를 감추고 왜곡시켜온 종교계는 이번 기회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정리된 답을 내놓고

순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제가 쓰는 종교 관련 마지막 책이 되기를, 그리고 이 책이 진정한 종교혁명의 조그마한 밑알과 불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연과학의 다른 영역이 서로 통합(統合, Convergence)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고 있듯이, 이제 우리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통섭(統攝 Consilience)을 통하여, 인류가 찾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주제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파악된 진리와 사실에 입각한 이론과 지식을 구축하고 이를 서로 공유하며 그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장은 구약성경이 일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대부분의 신화라는 것과, 왜 예수님께서 구약성경과 다른 새로운 약속(신약)을 내세우시며 구약성경과 결별하려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성경의 모순점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둘째 장은 예수님의 혁신적인 사회 개혁의 의도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 그리고 바울의 사상이 현 기독교의 기본 교리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셋째 장에서는 사후세계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예수께서 주장하셨던 '이승에서의 천국'의 의미를 검토하고, 마지막 넷째 장은 예수님이나 부처님과 같이 깨우치신 분들이 신이나 존재의 본질에 대해 주장하신 내용의 정당성을 자연법칙과 연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기독교인들이여!

이종록(한일장신대학교 교수, 구약학 박사)

무신론자. 말 그대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 무신론자가 종교를 가질 리 만무하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는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런데 무신론자가 종교를 옹호한다면?

나는 모태 기독교인, 즉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목사요 신학자로서 신학대학에서 36년째 구약성서를 가르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가 내 인생책 목록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이 책은 누가 썼을 것 같은가? 이 책 제목만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 비종교인에게 종교의 유용성을 알려주기 위해 쓴 책이라고 누구든 생각할 것이다. 이 책은 알랭 드 보통이 썼다. 알랭 드 보통은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가 무신론자들에게 종교를 권한다? 알랭 드 보통은 현대 사회가 겪는 공동체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교가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자신은 무신론자이지만, 신의 존재 여부나 신에 대한 믿음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교는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존속해 왔고, 지금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재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해서 종교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종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공동체 회복 방법을 열 가지로 나누어서 들려 준다.

나는 이 책을 읽고, 기독교 목회자들 독서 모임에서도 여러 차례 이 책을 함께 읽었는데, 이 책이 무신론자들보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종교, 특히 기독교라는 종교가 갖는 유용성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대다수 기독교인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종교, 특히 자신들이 속한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인류문화유산인지 모른다고 확신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서 경시 풍조이다. 성서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성서를 오래된 어려운 책, 흥미없는 고리타분한 책이라고 여기면서 성서 읽는 것을 싫어하고 성서를 공부하는 것을 극도로 귀찮아하고, 목회자들도 설교 시간에 흥미롭고 처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현재 기독교 형편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조차도 성서를 읽지 않는다. 그리고 성서에 대해 공부하려 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성서 전문가여야 할 사람들이 성서를 잘 모른다. 성경책은 넘쳐나는데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성서 읽는 사람, 성서 공부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이 신중세 시대를 나는 심히 개탄한다.

현재 기독교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목적이 무엇이든 성경책을 꼼꼼하게 읽는 사람이 나는 제일 사랑스럽다. 그리고 맹목적이고 그릇된 고정관념에 의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서를 비판적으로 읽는 사람이 내게는 참 귀하게 보인다. 이런 점에서 저자 김병운 친구는 내가 보기에 참 사랑스럽고 귀한 사람이다. 그 까닭은 50여년 알고 지내온 중학교 동창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가 평생을 구도자로 살아 왔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종교인이나 신앙인처럼 어떤 신적 존재를 신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자는 우리 삶과 우주 전체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도, 삶과 죽음, 죽음 이후, 이런 종교적인 문제에 천착해 온 삶을 살아 왔고, 지금도 그 문제에 온 삶을 헌신하고 있다.

그런 내 친구가 이번에 일을 저질렀다. 성서를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사라져야 할 악서로 규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대각성이며, 이를 통해 순전한 종교 혁명을 일으켜야 인류가 온전한 도를 깨닫고 거기에 따라 살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성서를 신의 말씀으로 떠받드는 기독교에 가장 강력한 도전장을 내미는 책을 펴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저자가 기울인 노력은 가히 놀랍다. 나는 이 친구를 만나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으면서, 저자가 들인 노력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버금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방대한 분량의 원고를 작성하고, 몇 번인지 알 수 없는 첨삭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원고를 마무리했다.

성서학자인 내가 보기에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성경책을 기독교인들보다, 목회자들보다, 아니, 신학자들보다 더 여러 번, 더 꼼꼼하게 읽었다는 것이다. 물론 성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읽었다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서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서의 단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성서를 열심히 읽고, 관련 자료들을 탐독하고,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언을 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모태 기독교인이고 목사이며 성서학자로서 오랜 세월 신학대학에서 성서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 친구인 저자가 성서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읽기를 바란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심지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여럿인 상황에서, 기독교가 대내외적으로 욕을 얻어먹는 이 한심한 형국에 진정한 도를 추구하는 저자가 성서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저자가 기독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서를 비판하기 위해서, 진정한 종교적, 정신적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경책을 인간사에서 퇴출시켜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성서를 본인이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비판적으로 읽었기 때문이다.

성서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거기에 근거해서 매주 몇 차례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공부하는 신학생들, 그들 가운데 저자만큼 성경책을 애독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성서를 비판하기 위해서 저토록 성경책을 열독하는데, 성서를 하나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면서 성경책 읽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서에 꽤 무지하고, 영성하기 짝이 없는 제 고정관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면서, 성서학자가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대다수라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공공연히 밝히는 알랭 드 보통이 쓴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를 무신론자보다 기독교인들이 읽으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소중한 인류문화유산인지 깨우쳐야

하듯 저자가 쓴 이 책을 기독교인들이 읽으면서, 자신들이 소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책 읽는 것에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 새삼 깨닫고, 성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실상은 얼마나 엉터리 고정관념인지도 실감하길 바란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을 추천한다.

교육 수준, 지적 수준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높다는 이 첨단 시대에 그저 놀고 먹는 본능적인 것을 라이프 스타일로 여기는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우주적 도를 깨닫기 위해, 그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힘겨운 구도자 삶을 자청하는 내 친구 김병윤 저자를 격려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바친다.